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감수 전문가 양성 교재 발간

실전 국어 표기법(1) 모두가 좋아하는 뷔페

국어원 30년 국어 문화의 집대성, 국어사전 편찬

국어원 소식(1) 2021년 제1회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 계획

우리말 다듬기(1) 자동차 야영하기 좋은 요즘

100년 전 우리말 풍경 신소설에 그려진 근대의 신문 독자들

실전 국어 표기법(2) 왠지 여름이 빨리 온 것 같아-웬'과 '웬'

읽기 좋은 글, 듣기 좋은 말 그게 아니라? 그렇기는 하지만!

사전 두 배로 즐기기 “표준국어대사전”, 아는 만큼 보여요!-두 번째 이야기

우리말 다듬기(2) 여름을 맞이하는 자세-체력 단련

우리말, 그리고 사람 지구촌 문자 자료 한데 모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 2021. 5.



목차

쉽표, 마침표. | 2021. 5.

국어 배우기

- 2 실전 국어 표기법 모두가 좋아하는 뷔페
- 4 웬지 여름이 빨리 온 것 같아-웬’과 ‘웬-’
- 6 읽기 좋은글, 듣기 좋은말 그게 아니라? 그렇기는 하지만!
- 10 사전 두 배로 즐기기 “표준국어대사전”, 아는 만큼 보여요!-두 번째 이야기

국어 알리기

- 14 국어원 30년 국어 문화의 집대성, 국어사전 편찬
- 18 국어원 소식 2021년 제1회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 계획
- 22 공공언어 감수 전문가 양성 교재 발간
- 24 우리말 다듬기 자동차 야영하기 좋은 요즘
- 26 여름을 맞이하는 자세-체력 단련

국어로 바라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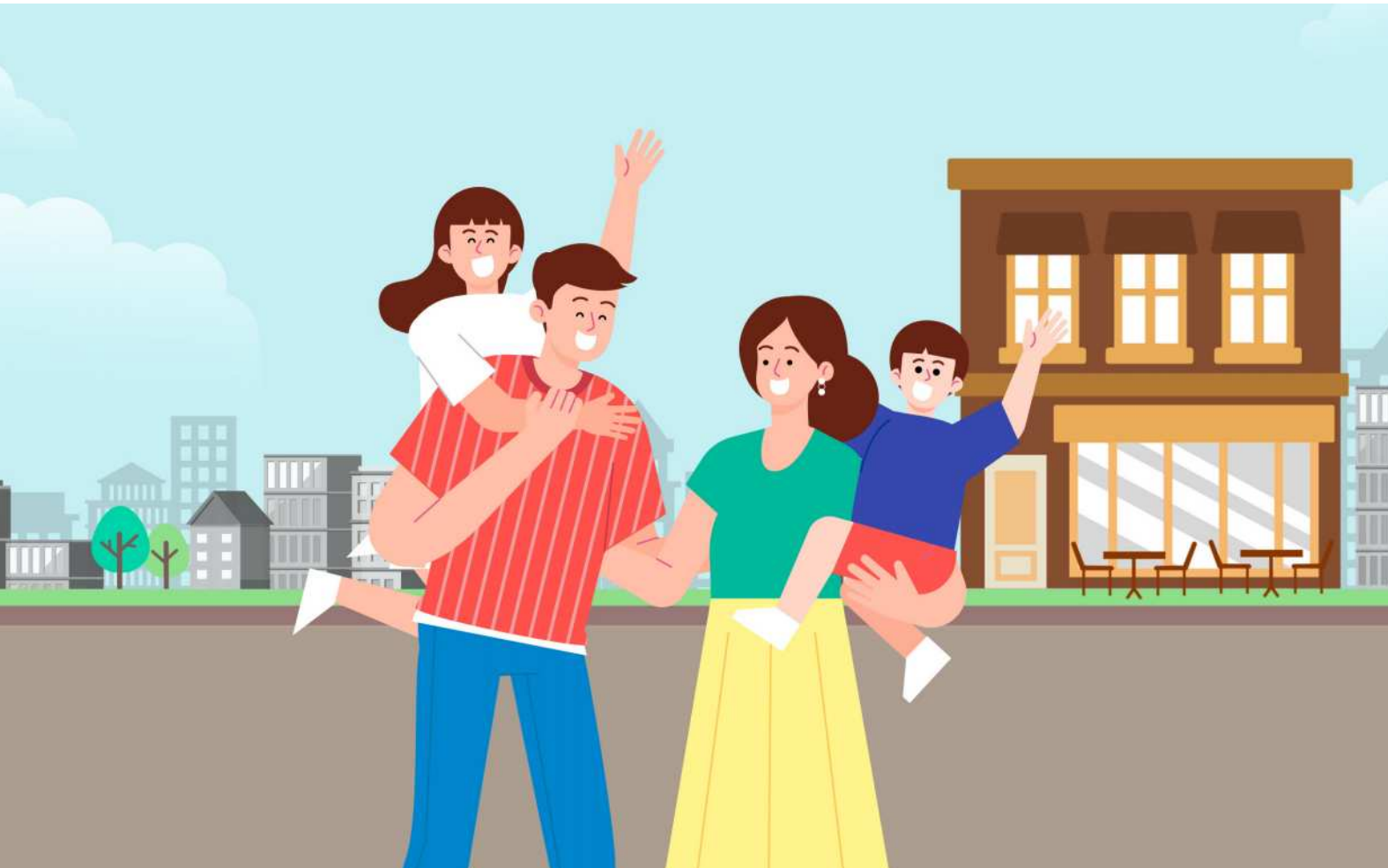
- 28 100년 전 우리말 풍경 신소설에 그려진 근대의 신문 독자들
- 34 우리말, 그리고 사람 지구촌 문자 자료 한데 모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국어로 함께하기

- 42 기획행사 세종대왕 나신 날 맞이 행사
- 44 세종대왕 나신 날 맞이 행사 당첨자 발표
- 46 우리말 풀기 독자 참여 행사
- 50 독자 참여 행사



모두가 좋아하는 뷔페



웬지 여름이 빨리 온 것 같아 '웬'과 '웬-'



'웬'과 '웬-'

| 웬 |

'웬'은 '어찌 된', '어떠한'을 뜻하는 관형사로 명사 앞에 쓰여 명사를 꾸며 주기도 하고, '웬걸, 웬만큼, 웬만하다, 웬일'과 같은 합성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 ㄴ 웬걸, 이게 웬 떡이야?
- 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웬만큼 먹어야지
- ㄴ 나는 성적이 웬만했다.
- ㄴ 네가 여기는 웬일이야?

'웬'과 '웬-'

| 웬- |

'웬-'은 '왜 그런지 모르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를 뜻하는 '웬지'의 일부입니다. '웬지'는 '왜인지(왜+이+~지)'가 줄어든 말이기 때문에 '웬-'만 단독으로 쓸 수 없으며 '웬지'의 형태로만 씁니다.

- ㄴ 친구는 웬지 내 말이 달갑지 않은 표정이었다.
- ㄴ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웬지 멋있어 보인다.



그게 아니라? 그렇기는 하지만!



글: 이미향(영남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말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말머리를 돌리는 사람, 말허리 자르는 사람, 말꼬리 잡는 사람, 남의 말을 가로채는 사람이라. 말[言]과 말[馬], 두 말의 소리와 뜻을 잘 쓴 언어유희인데, 소통력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그저 웃고 지나갈 일만은 아니다. 남의 말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을 가로채고 말꼬리를 잡아 이야기의 본질을 흐리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협력하기 힘들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개인의 생활에서든, 사회 속 인간관계에서든 말이다.

여기예다가 몇 가지 경우를 더해 보자. 남의 말문을 막는 사람, 남의 말에 올라타는 사람, 남이 한 말이 된다는니 안 된다는니 하는 사람 등이 있겠다. 이런 언어유희를 하는 우리도 말꼬리를 잡는 사람일까?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게 된다. 한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사고와 삶의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입은 웃보다도 그 사람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라면 ‘겨우 말 한마디’라 하며 넘어갈 수는 없다.

흔히 자신이 하는 말에는 잘 주목하지 않는다. 얼떨결에 나온 말, 습관적으로 하는 말은 스스로 자각하지 않으면 하는 줄도 모르고 지나간다.

만약 누군가가 열정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음...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른데?’ 하는 순간 어떤 말로 말 차례를 이어가고 있는가? 오늘은 녹음해서 듣는 기분으로, 자신의 말 습관을 무대 주인공으로 한번 올려보자.

우선 쉽게 들을 수 있는 말로 ‘근데’형이 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근데 말이야’, ‘그치만 말이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말은 일단 자신의 말 차례를 확보하면서 말할 의지를 보이는 적극적인 태도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런 중립적 자세는 듣는 사람 처지에서도 크게 무례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자. 지금 들려오는 말과 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털어놓을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덤덤할 수 있을까?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그게 아니라’형이다. 이 유형에는 ‘아니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지’ 등 다양한 부정 표현이 있다. ‘나의 뜻이 너와 다름’을 강조할 때 더 많이 들리는 표현은 사실 이것이다.

대화에 몰입하고 있는 화자가 반대를 표할 때 ‘아니, 그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상대방이 객관적인 사실을 잘못 말할 때는 단호히 ‘아니’라고 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말할 때마다 ‘아니’로 시작하는 말 습관이다. 습관이란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서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좋은 말도 한두 번이었는데, 심지어 말끝마다 거듭 부인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마냥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청자가 반감 없이 그저 듣고 있지 않을 것이다.

‘아니’형 가운데 조금 더 선을 넘는 말도 있다. ‘그걸 말이라고 해?’나 ‘그건 말이 안 되지.’와 같은 표현이다. 말은 누구의 것이 아니므로, 내 말은 말이 되고 남의 말은 안 될 수 없다. 설령 논리상 틀려 보이는 말이라도 사람끼리 하는 대화에서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판단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듣는 이가 잘못 이해한 일일 수도 있다.

‘내 그럴 줄 알았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말이다. 얼핏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위험한 말로,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는 이 말을 ‘사후확증편향’이라 했다. 결과를 확인한 뒤 처음부터 그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반응하는 현상인데, 어이없는 결과 앞에서 ‘내 그럴 줄 알았다’라 하는 것은 사실 ‘몰랐던 사실을 아는 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다. 어쩌면 예측하지 못한 것을 오히려 인정하는 셈이다. 상대방을 훤히 알고 있는 것처럼 투명하게 부정하는 ‘그게 아니라’, ‘그게 말이 되니?’는 화자의 독선적 성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내 말이, 내 말이’나 ‘내가 그럴 거라고 했어, 안 했어?’와 같은 말도 잘 쓰는 편이다.

그러면 이러할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우리가 주목할 세 번째 유형은 ‘그렇기도 하지만’형이다. 이 말은 우선 ‘그렇지’, ‘그건 그래’로 지금까지 상대방이 한 말을 수긍한다. 곧이어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데’라는 말을 더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말 끝마다 ‘아니’라고 부인하는 대화와, ‘그건 그런데’라고 하는 대화의 끝은 몇 차례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달라질 것이다. 화자의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까 봐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말하기란 웅변이 아니다. 말하기를 문제해결 과정으로 본다면 눈앞에 있는 상대방을 놓쳐서는 안 될 일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말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하고 싶은 말’이고, 다른 하나는 ‘들을 말’이다. 말은 상대방을 전제한다. 그리고 애써 대화에 임하는 목적은 사회적 관계를 높이는 데 있다. 비록 나는 현재의 화자일지라도, 듣는 이는 언제나 ‘잠재적 화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아니, 그게 아니라’가 아니라, ‘그것도 될 수 있는데’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표준국어대사전”, 아는 만큼 보여요! - 두 번째 이야기



글: 이운영(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지난 호에 이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는 정보를 항목별로 살펴보고 이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이번 호에서는 품사 및 전문어 영역의 의미부터 살펴보겠다.

표제어, 원어, 발음 정보, 활용 정보, 품사, 전문어 영역, 문형 정보, 문법 정보, 뜻풀이, 용례, 부가 정보, 관련 어휘, 참고 어휘, 최초 출현형, 다중 매체 자료, 관용구, 속담

(4) 품사와 전문어 영역

우리말의 품사는 보통 9가지로 나누는데, 이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단어가 2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모두 보여 주기도 한다.

하나

- [I] 「수사」 수효를 세는 맨 처음 수.
- [II] 「명사」 「1」 뜻, 마음, 생각 따위가 한결같거나 일치한 상태.

전문어 영역은 보통 품사 다음에 제시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전문어를 모두 67개 영역으로 세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품사처럼 해당 단어가 2개 이상의 영역에서 사용될 때에는 이를 모두 보여 준다.

가설(假說) 「명사」

- 「1」 「철학」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 체계를 연역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정.
- 「2」 「사회 일반」 사회 조사나 연구에서, 주어진 연구 문제에 대한 예측적 해답.

(5) 문형 정보와 문법 정보

“표준국어대사전”이 규범 관련 사항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항목이 ‘문형 정보’와 ‘문법 정보’이다. 기존 사전에서는 단순히 자·타동사 정도만 구분해 주었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실제 해당 단어가 쓰이는 문형을 자세하게 밝혀 줌으로써 올바른 문장 형식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이 활용되는 형태나 함께 많이 쓰이는 단어 등도 함께 보여 줌으로써 단어의 바른 활용과 사용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넘어가다’는 기존 사전에서 단순히 자동사와 타동사로만 나누었던 것이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문형과 문법 정보를 보여 준다.

넘어가다 「동사」

- | | |
|--------------|---|
| 1. 【…으로】 | 5. 【-게】(‘-게’ 대신에 다른 부류의 부사나 부사어가 쓰이기도 한다) |
| 2. 없음. | 6. 【…이】【…을】 |
| 3. 【…에/에게】 | 7. 【…을】 |
| 4. 【…으로】【…을】 | 8. 【…을 -게】(‘-게’ 대신에 ‘-이/하’ 따위 부사나 부사어가 쓰이기도 한다) |

‘넘어가다’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의미에 따라 나타나는 문형이 다르고 이를 문형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다’는 1번 문형에 속하여 항상 ‘으로’가 붙은 말이 나와야 하는 반면 ‘숨이 넘어가다’는 주어 외에는 다른 성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2번 문형에 속한다. ‘평화회가 평탄하게 넘어갔다’는 5번 문형에 속하는데, 이때 ‘-게’가 붙은 말 대신 다른 부사어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문법 정보를 통해 밝히고 있다. 실제로 ‘아이들 소풍이 무사히 넘어갔다’에서는 ‘-게’ 형태 대신에 ‘무사히’라는 부사어가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5번 문형에 속한 뜻풀이에서 ‘-게’ 형태나 부사어를 빼면 비문이 되기 때문에 이는 문법적으로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형 및 문법 정보는 특히 한국어 직관이 없는 외국인들이 글을 쓸 때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6) 뜻풀이와 용례

뜻풀이와 용례는 사전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다.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의 특징은, 최대한 다양한 풀이를 문형별로 나누어 담고자 했다는 것이다. 앞서 보인 ‘넘어가다’도 모두 15개의 뜻풀이를 8개의 문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은 용례에 특별히 많은 힘을 기울였는데,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는 크게 구 용례, 작성 용례, 인용 용례 3가지로 나뉜다.

현실(現實) 「명사」 「1」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상태.	
[구 용례]	분단 현실 /어려운 농촌 현실 / 현실 을 직시하다.
[작성 용례]	그는 현실 에 만족한다./인간이 현실 을 부정하고 살 수는 없다./오래전부터 가졌던 꿈이 현실 로 다가오고 있다.
[인용 용례]	한 가락의 노래를 창조하는 것보다는 하루를 우환 없이 지내야만 했던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 었다.《이어령,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구 용례는 많이 쓰이는 간단한 구 구성을 보여 주는 것이고, 작성 용례는 전형적인 쓰임을 보여 주는 문장을 직접 작성하여 보여 주는 것이다. 인용 용례는 문학 작품에서 해당 단어가 실제로 쓰인 예를 보여 준다. 용례는 ‘제2의 뜻풀이’라고 할 만큼, 단어의 실제 의미와 쓰임을 보여 주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표준국어대사전”은 문학 작품에 나타난 좋은 예를 보여 주기 위해 800개가 넘는 작품을 말뭉치로 구축한 후 여기서 좋은 문장을 뽑아 실고자 하였다.

(7) 부가 정보와 관련 어휘, 참고 어휘

“표준국어대사전”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부가 정보’의 제시이다. ‘부가 정보’에는 뜻풀이나 다른 정보에는 담기 어렵지만 사람들이 많이 틀리거나 궁금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너머’와 ‘넘어’는 사용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가 정보에서 이를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구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너머 「명사」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로.
※ ‘넘어’는 “산을 넘어 간다.”처럼 동작을 나타내지만 ‘너머’는 공간이나 공간의 위치를 나타낸다.

그 외 준말, 비슷한말, 반대말 등을 보여 주는 ‘관련 어휘’와, 같은 계열의 말을 보여 주는 ‘참고 어휘’도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특히 관련 어휘는 뜻풀이 단위로 보여 줌으로써, 더 세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네 번째 의미로 쓰이는 ‘어머니’는 낮춤 말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관련 어휘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다.

어머니 「명사」

「참고 어휘」가모(家母), 선대부인(先大夫人), 선비(先妣), 엄마, 자당(慈堂), 자친(慈親).
「1」자기를 낳아 준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늙아미.
「반대말」아버지, 「높임말」어머님, 「낮춤말」어미.
「4」자기의 어머니와 나이가 비슷한 여자를 친근하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반대말」아버지, 「높임말」어머님.

(8) 기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앞서 제시한 정보 외에도, 고유어의 경우 해당 단어가 언제, 어떠한 형태로 문헌에 처음 나타났는지를 알려 주는 ‘최초 출현형’이 제시되어 있고,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해당 단어로 시작하는 속담과 관용구도 다양하게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동영상은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 준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동사 ‘썰다’는 단순히 ‘자르다’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 줌으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국어 문화의 집대성, 국어사전 편찬



03



04



05



06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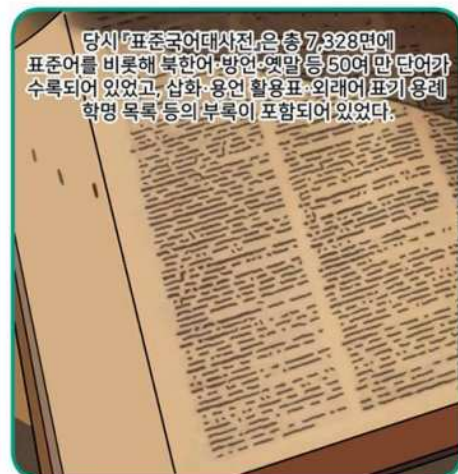
02



07



08



09



10



11



12



13

2021년 제1회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 계획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어원의 새 얼굴, '이음'이에요.
앞으로 함께 국립국어원의 소식과
유익한 국어 관련 정보를 함께 살펴봐요.
오늘은 '국어원 소식'을 알아보까요?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격 부여 등급 및 유형별 제출 서류

- 자격 부여 등급: 2급
- 유형별 제출 서류

구분	조건	제출 서류
대학(원)	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① 심사신청서 ② 성적증명서 ③ 졸업(학위) 증명서
양성기관(경력)	3년 이상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300시간 이상 한국수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에서 한국수어 교육 경력을 쌓은 사람으로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① 심사신청서 ② 성적증명서 ③ 졸업(학위) 증명서
양성기관(검정시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① 심사신청서 ② 이수증명서 ③ 검정시험 합격 확인서

| 신청 서류 제출 방법: 우편 발송

- 심사 서류 제출 기간: 2021. 5. 3.(월)~2021. 5. 14.(금)
- 우편 발송 주소: (우)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국립국어원 4층 특수언어진흥과 한국수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 심사 절차: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과 서류 등을 검토하고,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합니다.
- 심사 결과 발표: 2021. 6. 11.(금) / 개별 통보
※ 사정에 따라 발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교부 시기: 2021년 6월 중순 이후
※ 합격자 발표일부터 약 2~3주 후에 심사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누리집>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감수 전문가 양성 교재 발간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2021년 5월 6일(목) 공공언어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언어 감수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공공언어 감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침서』와 『익힘책』을 공개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두 책은 공공언어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닌, 공공언어를 감수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국립국어원은 쉽고 바른 공공언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각종 공공문서(공고문, 보도자료, 안 내문, 법령문 등)의 표현·표기를 감수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공공문서 729건과 공공용어 871건을 감수하였다. 아울러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2019), 『유형별로 알아보는 보도자료 작성 길잡이』(2020) 등 공공언어 사용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발간 해 왔다.

최근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언어 감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공공언어를 쉽고 바르게 감수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공공언어 감수 전문가를 늘려 늘어난 감수 수요에 대응할 계획인바, 누가 감수를 하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공공언어의 품질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언어 감수자 교육용 『지침서』와 『익힘책』을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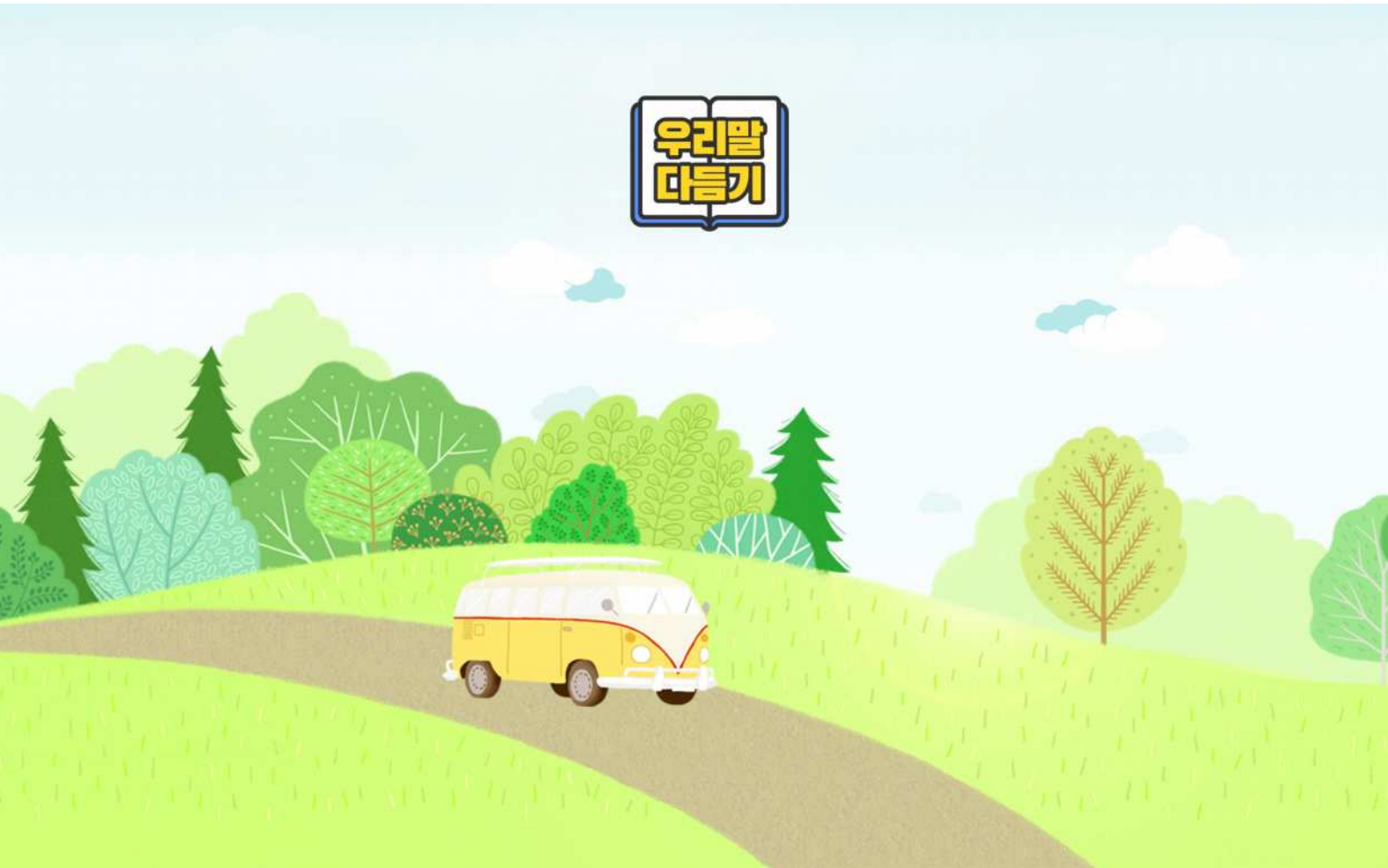
『공공언어 감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침서』와 『익힘책』은 국어 분야를 전공하긴 했지만 ‘공공언어’라는 특화된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은 충분하지 않은 이들이 보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언어 개선 정책과 문서 유형별 감수 방법을 자세하게 담았고, 스스로 자기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를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국립국어원 담당자는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에 공공언어 감수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이번에 개발한 지침서를 교재로 활용하는 등 공공언어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책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정희창 교수)에 위탁하여 제작하였으며,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 야영하기 좋은 요즘



여름을 맞이하는 자세 체력 단련



여름을 맞이하는 자세

체력 단련

피트니스

트레이닝복_대체어_운동복

여름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이 운동을 다짐합니다.

가장 먼저 마음에 드는 운동복을 고르고요.

우리말 다들기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들기

국립국어원

피트니스센터_대체어_건강_센터

퍼스널_트레이닝_대체어_일대일_맞춤운동

가까운 건강 센터를 찾아 일대일 맞춤 운동을 하기도 하죠.

우리말 다들기

국립국어원

크로스핏_대체어_고강도_복합_운동

저는 이번에 고강도 복합 운동에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우리말 다들기

국립국어원

햄스트링_대체어_허벅지뒷근육

높은 강도로 짧게 하는 운동이라, 허벅지뒷근육에 엄청난 자극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말 다들기

국립국어원

스트레칭_대체어_몸풀기_동작

물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 전후 몸풀기 동작도 잊지 않는답니다.

우리말 다들기

국립국어원

치팅_데이_대체어_먹요일

오늘 먹요일인데 운동 끝나고 뭐 먹을까?

오랜만에 떡볶이 어때?

운동으로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것처럼 다들은 말로 우리말도 건강하게 가꾸어 봐요.

우리말 다들기

국립국어원

다들은 말

- 트레이닝복 ➡ 운동복
- 피트니스 ➡ 체력 단련
- 피트니스센터 ➡ 건강 센터
- 퍼스널 트레이닝 ➡ 일대일 맞춤운동
- 크로스핏 ➡ 고강도 복합 운동
- 햄스트링 ➡ 허벅지뒷근육
- 스트레칭 ➡ 몸풀기 동작
- 치팅 데이 ➡ 먹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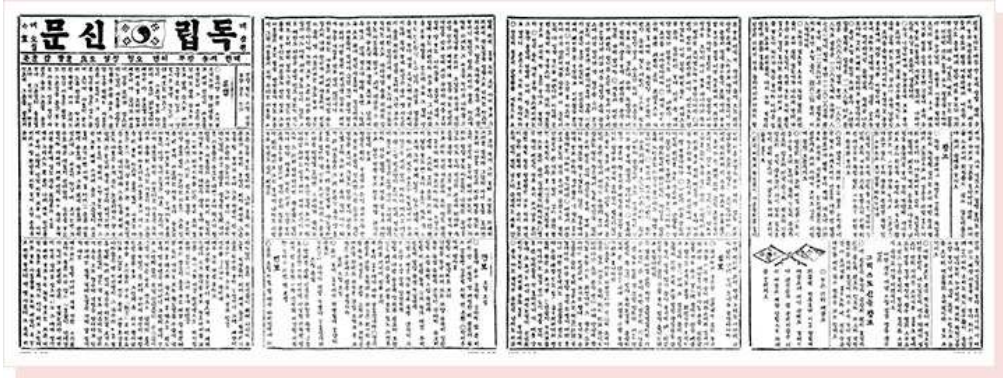
신소설에 그려진 근대의 신문 독자들



글: 안예리(한국학중앙연구원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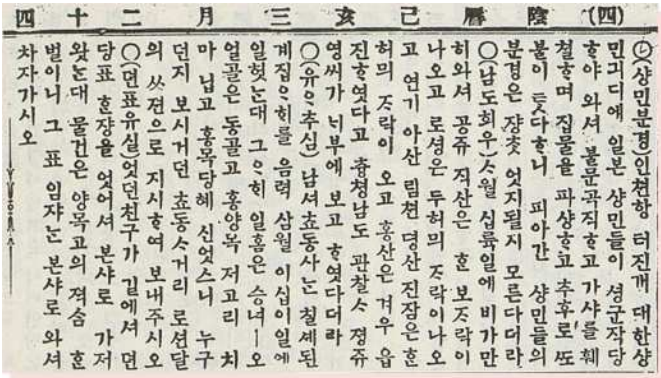
20세기 초에 나온 신소설에는 당대인들의 일상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신문을 읽는 모습도 그중 하나이다. 신소설의 이야기 속에서 신문은 인물의 정체를 암시하기도 했고, 사건을 유발하거나 반전을 가져오는 극적 장치로 활용되기도 했다. 신문을 읽는 등장인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당대의 최첨단 매체였던 신문이 개인의 일상을 파고든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1883년 『한성순보』의 창간을 필두로 1886년 『한성주보』, 1896년 『독립신문』, 1898년 『매일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 1904년 『대한매일신보』, 1906년 『만세보』 등 다양한 신문이 간행되었다.



▲<그림 1> 1898. 5. 7. 『독립신문』(국립중앙도서관 제공)

이 시기 신문은 대개 4면으로 발행되었는데, 1면에는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를 다룬 논설이 실리고, 2면에서 3면에 걸쳐 보도 기사가 실리고, 4면에 광고가 실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보도 기사는 정부의 소식을 담은 ‘관보’, 외국의 소식을 전하는 ‘외보’ 또는 ‘외국통신’, 국내의 사건 사고를 다룬 ‘잡보’, 전쟁 소식을 담은 ‘전보’ 등으로 분류되었다. 그중 신소설의 이야기에서 특히 자주 언급된 것은 잡보였는데, 다른 기사들에 비해 생활 밀착형 소식들을 다루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2> 1899. 5. 3. 『제국신문』잡보(국립중앙도서관 제공):
오른쪽부터 ○인천항 일본 상인들의 횡포, ○충청남도에서 큰비가 내린 정황, ○미아 찾는 소식, ○전당표 습득

그럼 이제 신소설에서 인물들이 신문을 읽는 장면들을 살펴보자. 구연학의 신소설 『설중매』 첫 장면은 병든 모친을 간호하던 주인공 장매선이 모친이 잠든 틈을 타 신문을 읽는 장면이다. 신학문을 공부한 매선은 이후 각종 역경을 이겨 내며 개화 운동에 앞장섰는데, 신문은 신여성으로서의 장매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품이다.

어마니 부르섯슴닛가 앓가까지 꺾헤 뵈시고 잇살더니 어마니게서 잠이 곤히 드신 듯후기로
밧게 좀 나아가 신문을 보앗삽니다 벌써 네 시나 되엿소오니 약을 잡스시지 아니후시려닛가
<1908 설중매, 1>

박이양의 신소설 『명월정』에서 허원이 채홍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도 신문이 등장한다. 결혼은 했으나 자식이 없는 허원은 살림 잘하는 과부를 후실로 들여 후사를 얻기 위해 개성에 간다. 한편, 부모를 잃고 불우한 사정으로 개성의 기생조합으로 팔려 간 채홍은 기생조합의 모략에 빠져 과부인 척하고 허원을 만나러 간다. 허원 역시 자신의 처지를 속이고 흠아비 행세를 하며 어색한 대화를 이어간다.

(히) 우리가 이러케 만는 것도 텃덩연분인 줄 아시오 이전 시딕에는 기가 간 집 주손으로 청환을 아니 준다 혼고로 그리후엿지마는 지금 기명 시딕에 호리비와 과부가 혼인후는 것을 누가 찬성 아니후며 우리들도 원원한 리치되로 췌々한 일이니 슬워 마시오 그리후실 췌후오나 나도 일희일비(一喜一悲)후는 곳이 잇소

(과) ...

(히) 무슴 어려운 말슴이 잇소. 관계 업스니 말슴후시오 나디려 가라 후시드라도 허물치 아니후 겿소 후며 불 붓듯후는 정용을 제어후고 좌우를 살퍼본즉 웬 신문 훈 장이 잇는지라 속으로 후는 말이 과부들이 이러케 유식한가 후더라

<1912 명월정, 34-35>

신분을 속인 두 남녀의 첫 만남에서 허원은 채홍 옆에 신문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과부들이 이렇게 유식한가’ 하고 의아해한다. 사실 채홍은 기생조합에 팔려 가기 전 사립 정덕여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신학문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던 신여성으로, 채홍이 읽던 신문은 그녀의 정체성을 암시하는 장치이자 앞으로 신분이 탄로 날 것을 암시하는 복선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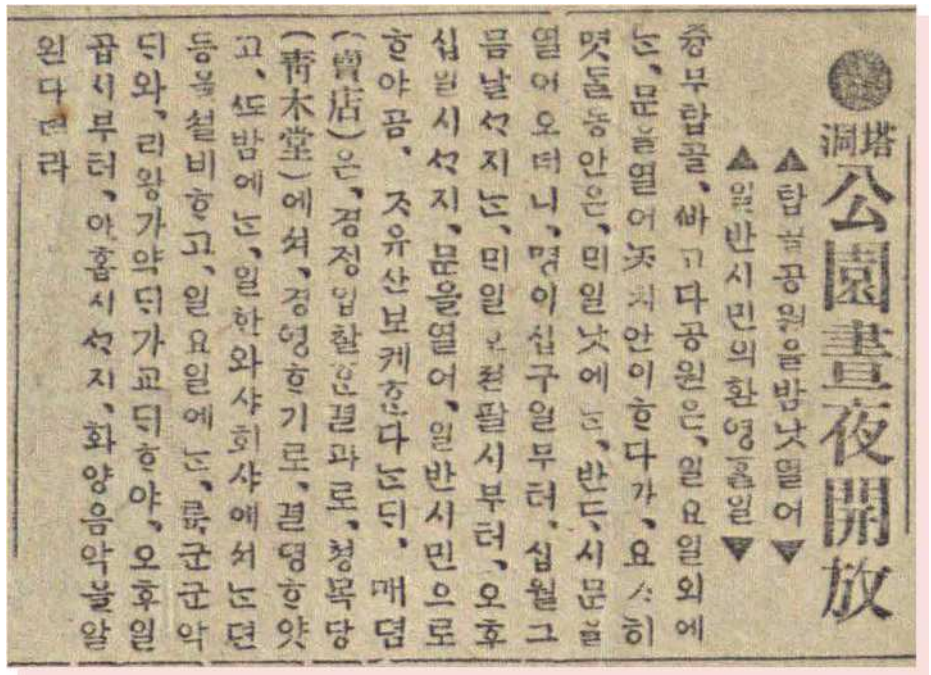
한편, 박춘식과 박정애 남매의 이야기를 다룬 최찬식의 신소설 『안의성』에서 춘식이 읽은 짧은 기사 한 편은 뜻하지 않은 비극을 초래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생선 장사를 하며 힘들게 돈을 모은 춘식은 애지중지하는 동생 정애를 여학교에 보냈고, 정애는 등하굣길 광화문 언저리에서 마주치던 법학도 상현과 결혼을 한다. 양반집 자제와 결혼한 동생이 자기 때문에 밍보일까 우려한 춘식은 결혼 당시 오빠가 행방불명된 것으로 속이도록 한다. 결혼한 동생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만나러 갈 수 없어 애를 태우던 춘식은 어느 날 신문에서 파고다공원을 밤낮으로 개방한다는 기사를 보고 비밀스러운 접선을 계획한다.

후로는 신문 잡보에 싸고다공원 기방이라 후고 요사이는 수동 싸고다공원을 밤낮 여러 노와 일반의 관람을 허한다더라 후엿는 고로 그 신문을 보고 싱각후기를

「올타 그러면 정애를 그곳으로 만나보리라」

후고 편지를 써서 광우리 장수 편에 비밀히 보닌 것이라

<1914 안의성, 54>



▲<그림 3> 『매일신보』 1913. 8. 28.(국립중앙도서관 제공): 실제로 당시 신문에는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일반 시민에게 파고다공원을 개방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비밀스럽게 전해 받은 이름 없는 편지에서 오빠의 필체를 확인한 정애는 시어머니 몰래 저녁 8시에 파고다공원에 간다. 남매는 눈물겨운 상봉을 했지만, 미행한 시누이에게 들켜 외도를 한 것으로 오해를 받은 정애는 시댁에서 쫓겨나고 이후 갖은 고초를 겪게 된다. 신문에 실린 기사 한 편이 몰고 온 비극인 셈이다.

이인직의 신소설 『은세계』의 최옥순과 최옥남 남매 역시 신문 기사로 인해 인생이 달라진다. 강릉 출신의 옥순과 옥남은 부친을 여인 뒤 미국 워싱턴으로 유학을 가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다 낙심하고 철도에 뛰어들어 동반 자살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치고 만다. 이를 뒤 워싱턴의 한 신문 잡보에 이들에 관한 기사가 실린다.

그 후 잇흘 만에 화성돈 어는 신문에 조선학성결사미수(朝鮮學成決死未遂) 재작일 오후 칠시에 조선 학성 최옥남 년십삼(年十三) 녀학성 최옥순 년십구(年十九) 학비(學費)가 떠러짐을 고민(苦悶)히 녀겨서 철도에 떠러져서 죽으려다가 순수 (킬라베루)씨의 구혼 바가 되얏다

<1908 은세계, 109>

이 기사를 본 한 미국인이 남매를 불쌍히 여겨 이들의 학비를 전액 부담해 주기로 하고, 이후 옥순과 옥남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참아가며 학업에 전념한다. 음악학교에 진학한 옥순과 경제학과 사회철학을 공부하던 옥남은 어느 날 신문을 읽다가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기사를 보게 된다. 1907년 고종의 퇴위와 순종의 즉위를 알리는 기사였다.

(옥남) 이것 좀 보시오 후는 소리에 옥순의 눈이 동구렁지며 옥남의 손소락 가라치는 곳을 본다 본력 옥순이가 고국 생각을 너무 후고 밤낮 근심으로 세월을 보닌는 고로 옥남이가 옥순이를 불췌마다 옥순이를 웃기고 위로후든 터이라 그 신문의 괴재한 대목은 한국되개혁(韓國大改革)이라 후앗는디 태황태폐하 전위후시든 일이라

<1908 은세계, 126-127>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외국에서 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남매는 “우리도 하루 바빠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우리 배운 대로 나라에 유익한 사업을 하여 봅시다.” 하고 그길로 짐을 싸고 귀국길에 오른다. 이 남매의 미국 유학은 신문 기사로 시작되어 신문 기사로 끝이 난 셈이다.

이인직의 신소설 『혈의누』에서 김옥련은 일곱 살이던 청일전쟁 당시 피난길에 부모를 잃었지만 어른이 되어 미국 땅에서 신문 광고를 통해 아버지와 재회한다.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유학을 간 옥련이는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 소식이 신문 잡보에 실렸고, 이를 본 옥련의 아버지 김관일이 자기 딸임을 짐작하고 신문에 현상금을 건 광고를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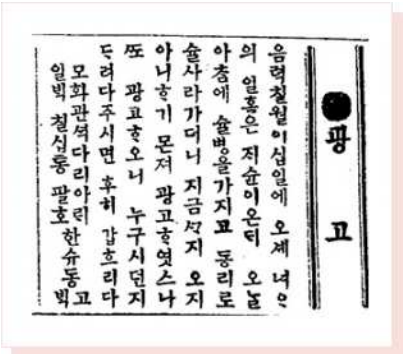
광고

지나고 열수흔날 황식신문 잡보에 한국 녀학성 김옥련이가 아무학교 졸업 우등생이라는 괴소가 잇기로 그 유후는 (호텔)를 알고후 하야 이에 광고후오니 누구시던지 옥련의 유후는 (호텔)을 이 고백인의게 알려 주시면 상당후 금으로 (十留) 십유 (미국돈 십 원)을 앙후명 수

한국 평안도 평양인 김관일 고백

<1906 혈의누, 79-80>

소설 속 장면처럼 실제로 당시 신문에는 사람을 찾는 광고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광고가 적지 않게 실렸다. 술심부름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은 딸을 찾는 아버지의 광고<그림 4>, 전차에서 분실한 약을 찾는 광고<그림 5>,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 나귀의 생김새를 설명한 광고<그림 6> 등을 보면 광고를 낸 사람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진다. 그런 한편, 누군가 잃어버린 회중시계를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는 광고<그림 7>처럼 분실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광고도 종종 실렸다. 이러한 광고들은 근대의 신문이 신문사가 독자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일방적 통로였을 뿐 아니라 독자들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쌍방향 통로의 성격도 가졌음을 보여준다.



▲ <그림 4> 『대한매일신보』 1907. 8. 29.



▲ <그림 5> 『대한매일신보』 1907. 11. 20.



▲ <그림 6> 『독립신문』 1896. 9.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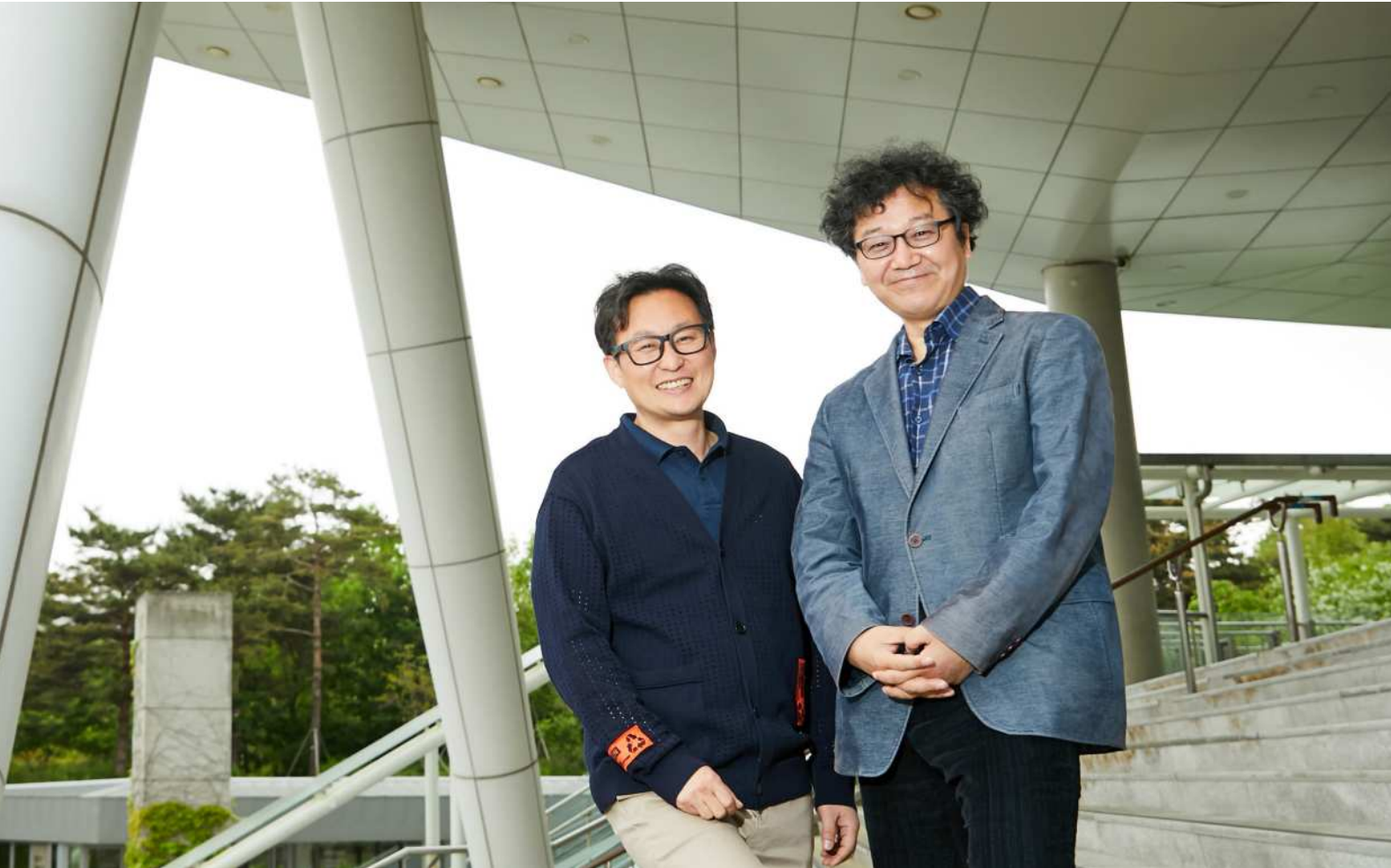


▲ <그림 7> 『대한매일신보』 1908. 2. 7.

신소설 작가들은 당대의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들에 극적인 성격을 더해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신문 논설을 보며 분노하고 결의를 다지는 옥순과 옥남 남매의 모습, 잡보에 실린 짭막한 기사들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는 춘식과 김관일의 모습, 광고를 보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옥련의 모습은 소설 밖 필부필부(匹夫匹婦)의 모습이기도 했을 것이다.

지구촌 문자 자료 한데 모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김양진 경희대학교 국문과 교수, 이건욱 문화체육관광부 학예연구관 대담



전 세계 문자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2022년 인천 송도에 개관한다. 세계문자박물관에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전 세계의 유무형 문자 자료를 전시할 예정이다.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자 문자 관련 연구·교육 및 학술 교류의 거점이 될 세계문자박물관. 김양진 경희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와 이건욱 문화체육관광부 학예연구관에게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역할과 건립 의의를 들어본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엿보는 인류의 삶



▲ 이건욱 문화체육관광부 학예연구관

《선표, 마침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건립되는 세계문자박물관이기도 한데요. 어떤 공간인지 소개해 주세요.

이건욱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하지만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이전의 박물관들과 그 의미가 다릅니다. 중국의 ‘문자박물관’은 한자와 소수 민족의 다양한 문자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박물관입니다. 프랑스의 ‘샹폴리옹 문자박물관’은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해 고대 문명을 밝힌 장 프랑수아 샹폴리옹(Jean-Francois Champollion)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공간이며, 인류 문명의 최초 4대 문자와 함께 알파벳의 역사 등을 전시하고 있죠. 이 두 박물관의 특징은 ‘문자’ 자체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박물관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관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위 박물관들처럼 문자의 역할과 기능, 생성과 소멸 등도 다루겠지만 문자를 매개로 세계의 문명교류사, 인류의 삶과 문화를 살펴보고 성찰하게 하는 것이 건립의 주목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흐름을 선도하는 오이시디(OECD) 선진국임에도 지금까지 세계 문명과 관련한 박물관이 없었는데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국내 최초로 세계 문명과 문화를 다루는 박물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표, 마침표.》

전 세계에는 6천여 개의 언어가 존재하지만, 문자의 종류는 단 50개뿐이라고 합니다.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정리하기까지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격차가 무척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김양진

인류사에서 문자가 발명되는 것은 대부분 소유 때문입니다. 농경 사회에서 소유물을 기록하고 보관·보존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문자 형태로 단순화된 것이죠. 소유할 것이 많은 개방된 공간이나 그러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고대 문명사회에서는 소유를 표시하던 문자가 점점 체계화·구체화되어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가 제한된 곳, 공유 개념 이상의 개별적 소유가 필요 없는 원시적 사회에서는 언어(구어) 이외에 다른 기록 수단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겠지요.

문자를 먼저 발명한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보다 더 많은 정보와 재산을 축적해 나갔을 겁니다. 심지어 다른 민족과 소유물을 지배하는 데에도 문자를 활용했을 테죠. 이때 지배를 받는 사회는 지배하는 사회의 선진적 문자를 받아들여서 그 문명의 앞선 소유 방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 언어마다 새로운 문자가 계속해서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만들어진 문자, 즉 한자나 이집트 문자, 메소포타미아 문자 등 문명국의 문자가 확산해 다른 언어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현재 남겨진 음성 언어가 6천여 개 이상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되는 문자는 채 50여 개에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일찍이 『충, 군, 쇠』를 쓴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인류 역사를 변화시켜 온 것으로 충(무기), 군(의료 체계), 쇠(철기 문명)의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세 가지를 매개해서 조절하는 것은 문자와 이 문자의 담당층이라고 보았죠. 문자를 전담한 계층이 인류의 문명사를 이끌어 온 것은 그런 면에서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심표, 마침표.》

한글뿐만 아니라 세계 문자를 한데 모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김양진

음성 언어는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의 역사에 비해 음성 언어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인류에게 음성 언어가 있었던 기간은 10만 년이 넘지만, 문자가 존재했던 기간은 채 만년이 되질 않죠. 길게 봐야 8천 년, 실제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문자는 약 6천 년 전쯤의 것입니다.

문자가 발명되면서 인류는 자신들의 정보를 누적하고 지식을 확장해 왔습니다. (음성 언어를 통한) 단기 기억을 (문자를 통한)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게 가능해진 거죠. 오늘날 인류 발전의 총화를 정보화라고 한다면 그 정보화의 출발점은 바로 이 문자박물관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문자박물관에 수집된 여러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류가 문자를 이용해 어떻게 정보를 누적해 왔고 세계인들과 교류해 왔는지, 인류가 정보를 축적해 온 방식과 우리글 한글로 정보를 축적하는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글이 세계 문자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드라마 ‘도깨비’를 보면 도깨비 공유가 가상의 문을 열어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넘나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처럼 문자박물관에 전시된 세계 문자의 기록 하나하나가 우리를 그 시대, 그 장소로 연결해 주는 타임캡슐이 되는 것이죠. 문자박물관 속 기록 유산은 세계인과 우리, 한민족과 인류를 연결하는 정보의 매개체이자 세계화의 통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심표, 마침표.》

문자의 역사와 기록은 결국 인류 역사의 기록이기도 할 텐데요. 세계문자박물관의 전시품과 관련해 관람객의 흥미를 끌 만한 역사적 사건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이건욱

수집한 유물 중에 ‘구텐베르크 42행 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 압착기로 찍어 대량으로 발간한 최초의 기계 인쇄 성경이죠. 구텐베르크가 42행 성서를 찍어 낸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유럽 일대에는 약 900만 권의 책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정보가 공유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문자가 권력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귀족들만 읽고 쓰기를 익혔습니다. 그러다 인쇄술이 발달하며 문자 정보가 대중화되고 세상이 변했죠. 위키피디아가 생긴 이후 누구나 지식 창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쓰고 읽을 줄만 안다면 일반 민중도 얼마든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구텐베르크 성경은 인쇄사에서 성경의 역사와 경제사에서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문자박물관 전시와 관련해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대량 생산된 문자 덕분에 지식의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 구텐베르크 42행 성서

김양진

한글 역시 그런 역할을 했죠. 훈민정음 반포 이후 한민족이 지식의 대중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확장하는 중심에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한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글은 통치를 위해 만든 글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백성을 옥죄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의 표현을 더 담아내려고 만든 글자라는 점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대중화를 이루는 데 기여했죠.

세계 문자 속에서 바라본 한글



▲ 김양진 경희대학교 국문과 교수

《심표, 마침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언어를 이야기하며 ‘한글’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표음문자라는 것 외에도 한글에만 있는 문자로서의 특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외국 문자와 비교해 한글이 갖는 특징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김양진

널리 알려진 것처럼 한글의 창제 원리는 논리적입니다. 설명할 수 있고 납득하기도 쉽죠. 글자가 어떤 원리에서 생겼고, 어떤 모양을 흉내 냈으며, 어떤 소리를 담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근감도 느껴 집니다. 일일이 외우지 않고도 이해하며 익힐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한글이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어는 ‘교착어’라고 해서 조사나 어미가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입니다. 형태소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한글이라는 문자가 있어 이 복잡한 언어를 ‘끊어 적기’, ‘모아 적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표기 체계가 없죠.

한글은 의미와 소리를 모두 전달하기에 효율적입니다. 한글을 로마자처럼 써서 외우려고 하면 아마 외울 수가 없을 겁니다. 같은 ‘국’을 쓰지만 ‘국민[국민]’과 ‘국가[국가]’에서의 소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글로 쓰면 ‘국’이라는 소리를 모아서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글의 이 같은 원리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았던 이전에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매개로 배우면 한국어도 쉽게 배울 수 있죠. 이처럼 한국어라는 개별 언어, 복잡한 언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한글은 한국어를 표기하기에 최적의 문자입니다.

이건욱

한번은 해외 학술대회를 갔는데, 외국 사람들이 제가 글 쓰는 것을 보고 감탄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글을 흘려 쓰는데, 우리는 글자를 또박또박 구별해서 쓰니까 그게 마치 바느질을 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였더라고요.

김양진

한글은 글자 자체가 형태가 보이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래야 의미 전달이 잘 되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도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한국어는 어렵지만, 한글은 쉽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최소화된 장소와 최소화된 요건으로 전체 글자 체계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특징 덕분에 한글이 정보화에 빠른 속도로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심표, 마침표.》

세계문자박물관의 건립이 한글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건욱

세계문자박물관은 문자만 알리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자를 통해 역사와 문화를 보여 주는 박물관이죠. 예를 들어 ‘한글박물관’의 전시는 ‘한글’과 ‘한글과 관련된 다양한 우리 삶’을 보여줍니다. 한국 문화사 안에서 한글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녔는지 소개하는 박물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종대왕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세계문자박물관에서는 오히려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을 부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우주 가운데 사람을 두고 천지인의 원리에 따라 문자를 만든 사람이 있었다’는 배경을 소개하는 것이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했던 시기는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와도 일치합니다. 넓게 보면 우리에게도 세계적인 흐름을 타는 사조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세계문자박물관에서 한글을 보는 관점은 세계 문자 안에서 한글의 위치를 잡고 위상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김양진

한글을 두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글자’, ‘세계 최고의 글자’라고 찬사를 보내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바로 한글이 ‘한국어에 적합한 문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한글을 통해 세계 여러 문명 가운데 ‘한글 문명’이라는 하나의 독자적 문명을 개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이야말로 우리 한글 문명이 다른 문명들과 교류할 뚜렷한 준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자로 잇는 과거와 현재, 미래



▲ 이진욱 학예연구관이 세계문자박물관 개관을 준비하며 기록한 공책

《선표, 마침표.》

박물관은 이제 이해의 공간을 넘어 체험의 공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세계문자박물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진욱

예전의 박물관이 교육적인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 공간으로 경향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국립박물관은 특히 국가의 아름다운 것만을 보여 주기 때문에 자칫 관람객에게 “우리 것만이 최고다.”라는 관점을 심어줄 수 있죠. 이러한 국수주의적인 태도,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관념은 우리 다음 세대를 폭력의 세상으로 안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문자를 어떻게 체험하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체험이라는 개념을 좀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감을 사용해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체험이라는 게 넓게 보면 결국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박물관에서 인류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느끼며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 또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최신 기술을 이용해 문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체험해 보고 문자를 매개로 다양한 인류의 삶을 간접 경험해 볼 수도 있죠.

원래 박물관이라는 공간은 사회적 이슈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소멸하는 문자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전시 말미에는 관람객이 직접 한두 문장의 글을 써서 문자 저장소에 보관해 둘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정보 집적 기술이 워낙 좋아 많은 문자를 저장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으니깐요. 약 500년쯤 후에 후손들이 이 글을 꺼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우리 조상들도 아이들을 몸부림치게 사랑했었고, 나와 같은 이별의 아픔을 겪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문자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것, 이것이 문자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표, 마침표.》

김양진

끝으로 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을 기대하는 대중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문자가 만들어지고 활용되어 왔는지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전 세계 인류가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발현해 온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글 문명이 여타의 문명과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가 그 안에서 교류의 주체로서 참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죠. 한민족이 다른 여러 민족과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의 문명을 만들어 온 역사를 보며 주체적인 자긍심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계문자박물관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한번쯤은 방문해 볼 만한 곳이죠.

더욱이 세계문자박물관이 세워지는 인천은 한국에서 세계로 나가는 관문이자 세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출구이자 입구죠. 이런 위치도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입구로서 우리를 소개하고 출구로서 세계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세계문자박물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들도 이런 점에 관심을 갖고 문자박물관을 찾는다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진욱

박물관을 나설 때 관람객의 마음가짐이 저희 같은 전시 기획자에게는 무척 중요합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내가 문명의 어디쯤 있는지를 알고, 나에게 내재해 있는 창의성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인류가 걸어온 길을 여행하는 것이야말로 세계문자박물관이 갖는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평화와 보편성을 목표로 전 세계 사람들의 글을 담는 박물관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기존의 문명사 박물관을 보면 굉장히 제국주의적이죠. 대부분의 유물이 수탈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세계문자박물관은 여러 국가와 합의해 세계 문화를 소개하는 세계 유일의 문명 박물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의 경관이 좋습니다. 박물관 자체도 전통 기록 매체인 두루마리를 형상화해 아름답게 지었죠. 소위 ‘인증샷’을 찍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웃음)

글: 김은주

사진: 김영길

세종대왕 나신 날 맞이 행사

- 숨은 단어를 찾아 주세요!



2021년 5월 15일은 624번째 세종대왕 나신 날입니다.

이날을 맞아 국립국어원에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세종대왕 나신 날 624돌 맞이 행사
숨은 단어를 찾아 주세요.

기간 2021. 5. 4.(화)~2021. 5. 13.(목)

선물 치킨 교환권 5명
문화 상품권 20명
음료 교환권 50명
* 응모해 주신 정답자 중 75명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 제시된 세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 아래 표에서 지워주세요.
- 지우고 남은 세 글자를 조합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 "숨은 단어 찾기"를 눌러서 정답을 적어주세요.

문제

세	죽	대	화
용	문	어	해
동	종	비	상
가	보	천	하

- 문인정음으로 쓴 최초의 문학 작품
※ 한글날 특별호 2019년 10월 '안녕! 한글아'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주는 상
※ 2016년 5월 '안녕! 우리말'
- 한글 창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 담긴 책산 안 씨 일가의 000
※ 2015년 5월 '한글 위인 열전'

참여기간
2021. 5. 4.(화)~2021. 5. 13.(목)

당첨자 발표
2021. 5. 18.(화)
《심표, 마침표》 '가림 행사' 게시판에 발표

당첨 선물

5명

치킨 교환권

20명

문화 상품권 ₩10,000

50명

음료 교환권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 당첨자 발표



10,171분께서 세종대왕 나신 날 맞이 행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5월 25일(화)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상품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립국어원과 <<쉽표, 마침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립국어원

세종대왕 나신 날 624돌 맞이 행사 당첨자 안내

정답 공개

축 하 해

- 문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문학 작품
- 용비어천가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주는 상
- 세종문화상
- 한글 창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 담긴
죽산 안 씨 일가의 000
- 대동보

치킨 교환권

강*지(8695) 김*영(6791) 김*영(8084) 박*정(9607) 이*숙(1163)

문화상품권

강*정(9829) 김*미(0295) 김*원(6763) 김*우(2418) 박*순(0698)
안*근(4811) 안*영(7372) 양*진(4491) 오*희(9256) 원*라(0766)
유*남(2738) 이*선(6287) 이*정(2842) 이*현(4671) 이*기(1593)
아*민(8535) 아*진(9083) 이*진(1815) 정*화(6132) 정*지(2280)

음료 교환권

강*정(0017) 권*자(4409) 김*석(9917) 김*건(5669) 김*영(4626)
김*호(0814) 김*희(9083) 김*아(1438) 김*리(9025) 김*늘(4563)
김*철(7972) 김*경(4640) 도*일(7996) 박*원(7901) 박*미(7680)
박*경(8394) 박*배(2974) 손*영(8011) 심*보(1370) 안*지(5048)
양*아(1537) 유*정(4428) 윤*근(7471) 이*영(5895) 이*현(3371)
이*화(0214) 이*미(8218) 이*화(1413) 이*은(3195) 이*진(3508)
이*령(3966) 임*경(4740) 임*은(3589) 임*우(2038) 정*영(5909)
정*하(0214) 정*연(0552) 정*숙(2654) 정*유(1010) 조*향(5515)
최*경(1712) 최*기(5713) 최*숙(3289) 최*란(8196) 하*안(9135)
하*훈(2232) 한*훈(2320) 한*선(7447) 홍*비(8790) 황*호(2691)

당첨 관련 문의: 070-4214-8228

우리말 풀기



꽃 한 송이에도, 선물 하나에도 마음을 담고 싶은 5월입니다.
독자 여러분을 생각하며 «심표, 마침표.»도 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재미있게 읽고, 우리말 풀기에도 꼭 참여해 주세요!

문제 1

저는 국립국어원의 새 얼굴 ‘’예요.
앞으로 함께 국립국어원의 소식과
유익한 국어 관련 정보를 함께 살펴봐요.

단서 국어원 소식

문제 2

요즘에는 사람 많은 곳을 피해 자연을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숙박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도
숲이나 바다에 머물 수 있는 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단서 우리말 다듬기

문제 3

‘’는 정부의 소식을 담은 ‘관보’,
외국의 소식을 전하는 ‘외보’ 또는 ‘외국통신’,
국내의 사건 사고를 다룬 ‘잡보’,
전쟁 소식을 담은 ‘전보’ 등으로 분류되었다.

단서 100년 전 우리말 풍경

문제 4

아직은 외식이 자유롭지 않지만
5월에는 집에서라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서로의 을 되새겨 보는 건 어떨까요?

단서 실전 국어 표기법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응모 기간

2021. 5. 4. ~ 2021. 5. 18.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심표, 마침표.>> 2021년 6월 호에 공고함.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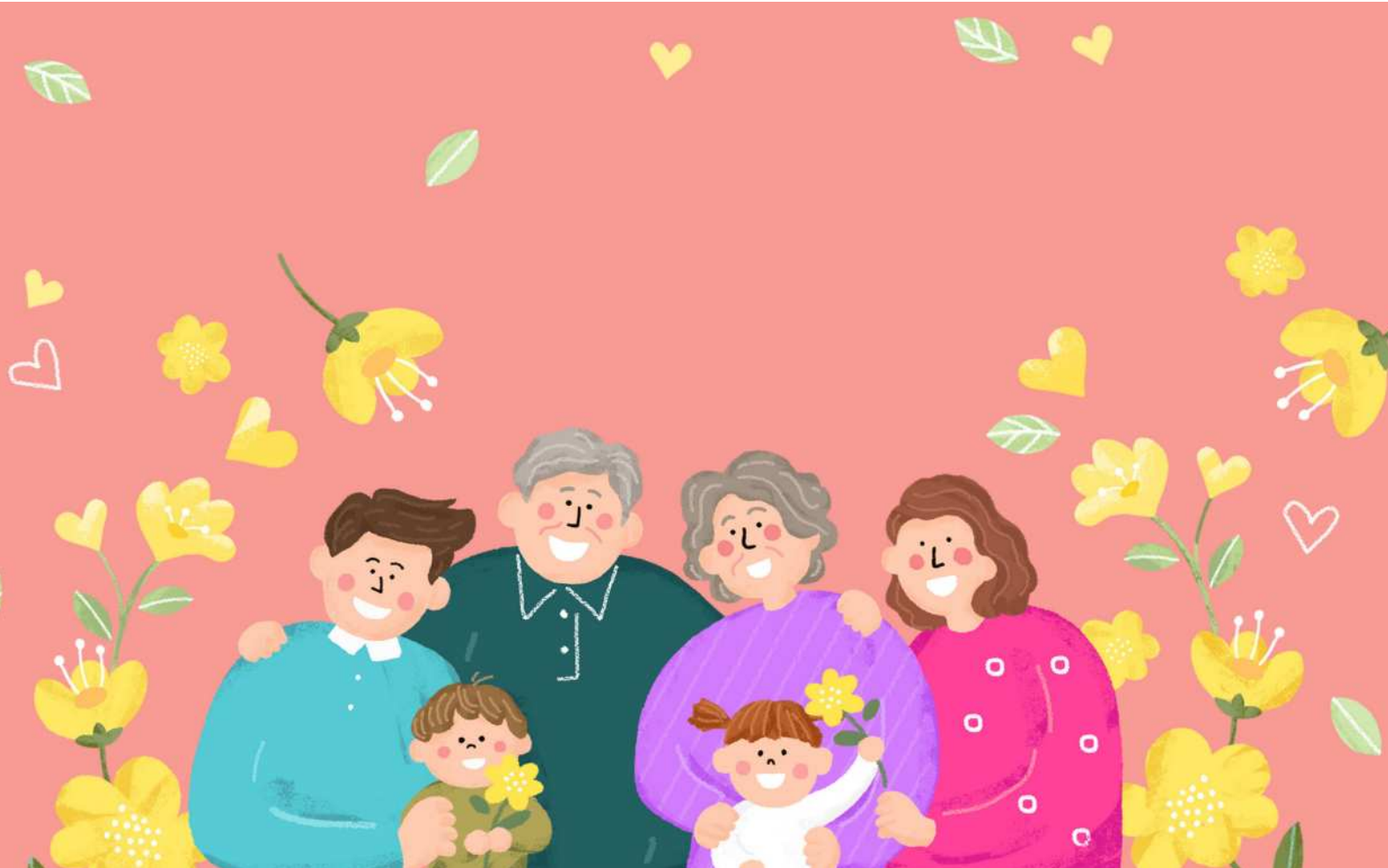
당첨자 열 분께는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1년 4월 호 우리말 달인 당첨자

이*림(7440) 유*철(3267) 오*환(6754) 김*애(7987)
김*철(5418) 이*람(6227) 박*름(8765) 김*형(4716)
김*정(8639) 최*수(3954)

우리말 풀기



5월에 피는 수많은 꽃처럼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은 «침표, 마침표.»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말 풀기'로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문제 1

“표준국어대사전”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의 제시이다.
‘□□□□’에는 뜻풀이나 다른 정보에는 담기 어렵지만
사람들이 많이 틀리거나 궁금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단서 사전 두 배로 즐기기

문제 2

누가 감수를 하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공공언어의 □□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언어 감수자 교육용 지침서』와 『익힘책』을 발간하였다.

단서 국어원 소식

문제 3

그리고 애써 대화에 임하는 목적은
사회적 관계를 높이는 데 있다.
비록 나는 현재의 화자일지라도,
듣는 이는 언제나 ‘□□□□’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단서 읽기 좋은 글, 듣기 좋은 말

문제 4

‘웬’은 ‘어찌 된,’ ‘어떠한’을 뜻하는 □□□로
명사 앞에 쓰여 명사를 꾸며 주기도 하고,
‘웬걸, 웬만큼, 웬만하다, 웬일’과 같은 합성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단서 실전 국어 표기법

문제 5

사실 ‘□□’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국립박물관은 특히 국가의 아름다운 것만을 보여 주기 때문에
자칫 관람객에게 “우리 것만이 최고다.”라는 관점을 심어 줄 수 있죠.

단서 우리말, 그리고 사람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선물

당첨자 열 분께는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응모 기간

2021. 5. 18. ~ 2021. 6. 1.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심표, 마침표.>> 2021년 6월 호에 공고함.

2021년 4월 호 우리말 달인 당첨자

이*림(7440) 유*철(3267) 오*환(6754) 김*애(7987)
김*철(5418) 이*람(6227) 박*름(8765) 김*형(4716)
김*정(8639) 최*수(3954)